

COP26 연기키로. 원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번역 : APEC기후센터 전문위원 김세원

제26차 UN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6)가 당초 금년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으로 연기되어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야심차게 준비한 COP26의 개최는 아쉽게도 가능치 않게 되었다. 이 총회는 영국이 주최하고 이탈리아 측이 후원하기로 했지만 COP를 담당하는 UN 기후변화협약 집행부에 의해 연기가 결정되었다.

“개최 일정이 훗날로 재조정됨으로써 모든 당사국들은 이 중요한 총회에서 논의될 사안들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고 회의를 보다 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다. 우리는 기후 행동 의욕을 높이고, 회복력을 키우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키로 약속한 모든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노력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라고 결정 사항을 공지하면서 UNFCCC는 밝혔다.

“세계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전지구적 도전을 맞고 있으며 국가들은 지금 당장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노력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COP26 일정을 재조정하기로 한 이유이다.” COP26의 장 지명자이자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 장관인 Alok Sharma는 말했다.

UN 기후변화 사무총장 Patricia 에스피노자는 “코로나19는 오늘날 인류가 처한 가장 긴박한 위협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인류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했다.

조만간 경제는 되살아 날 것이고 이 때야말로 국가들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자국의 복구 계획에 이번에 드러났던 가장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조치 내용도 포함시키고, 아울러 청결하고, 녹색환경을 생각하고, 건강하고, 정의롭고, 안전하고 그리고 더욱 강건한 방법으로 21세기 경제를 일궈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COP26은 유수의 최정상급 총회들 중 하나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기상기구도 자체 회의를 모두 연기시켰다. 여기에는 4월 중 계획되었던 여러 기술정책 관련 회의들과 6월 중 열릴 예정이었던 WMO 집행이사회

가 포함된다. 이 회의들은 2020년 하반기 중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다.

WMO가 공동 후원하는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 역시도 자체 활동을 재조정할 바 있다. 다만 이 때문에 IPCC 6차 평가보고서를 정해진 일정 내에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기후행동의 필요성을 줄이지 않는다

WMO 사무총장 탈라스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산업 침체가 합심 노력하여 진행해온 기후행동을 대신하진 않는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과거의 경험에서 보면 온실가스 배출이 경제 위기 때는 줄었다가 그 직후에는 급격히 상승한다며, 이제 그러한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의 보건 및 경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희망컨대 이 위기도 시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완화에 실패하게 되면 세계 경제와 인간 생활조건, 해양 및 육상 생태계에 수세기간 이어질 부정적 영향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는 경고했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와 해양에 수백 년 간 남아있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시적 배출 경향의 하락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 주요 감시소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아직까지는 작년 동기간에 비해 더 높다.

하와이에 소재한 마우나로아 감시소의 금년 2월 평균 CO₂ 농도는 414.11 ppm을 기록했는데, 작년 2월에는 411.75 ppm이었다. 마우나로아 감시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온실가스 감시소로서 WMO 지정 지구대기감시(GAW)망의 대표 감시소이다.

또 다른 대표 온실가스감시소로 호주 타즈매니아에 소재한 케이프그림 감시소를 들 수 있는데, 호주 CSIRO에 따르면 여기에서 켄 금년 2월 평균 CO₂ 농도는 408.3 ppm이었고 작년 2월에는 405.66 ppm이었다. 테너라이프 소재 아자나 감시소에서 측정한 값 역시 작년 동기보다 높았다.